메주고리예

Medjugorje

MARCH, 2004 제 20호

성모님의 메세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내 메시지들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달리 진정으로 너희의 마음을 열라고 너희들을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다른 이들의 영혼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서는 안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특별한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지금은 보속과 회개의 때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사람들이 되라고, 나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너희들을 부른다. 그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느님께서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에게 풍성한 축복과 평화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2004년 2월 25일

평화의 모후 선교회

어머니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들...

요조 즈브코 신부

저는 2002년도 11월에 미국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저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주중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고 아침 일찍부터 가게문도 열지 않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모여주신 NY과 LA의 모든분들, 준비를 해주셨던 분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징표였고 확신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의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질 수 있었던 확신이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계획은 항상 모든 삶을 하느님의 손에 의탁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특별히 이러한 하느님의 뜻에 응답할때 더욱 위대해집니다. 하느님께 충실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대해집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그 인내심과 깊은 믿음을 복음과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 가십시요. 그럼으로써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열매가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해보십시요.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구원의 말씀,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말씀을 함께 전하십시요. 또 교회는 우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성사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을때 우리는 언제나 은총의 원천으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사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가톨릭 교회의 신비와 세상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와 전통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복음을 읽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웃들을 위하여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위대한 표징이 되어 주십시요. 저는 거룩한 동정 마리아이신 어머니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 들였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도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별빛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지혜로운 동방박사들 처럼 말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하늘에서 비추어 주는 그 빛을 믿고 따라 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 가정안에 보호받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것은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날의 이 시대는 가정관이 위협받고 있으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족들만의 친밀한 관계가 불신받으며 상처받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면들과 인성 자체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인가로 부터 크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어마 어마하게 큰 힘으로 부터 공격 받으며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들으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잘 살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신자 분들께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굳은 믿음 안에서 가족들의 믿음을 강하게 일치시켜 주십시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성모님과 예수님안

에 일치 되었을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인간의 본성이며 끊임 없는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들의 영혼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으며 또 신앙의 빛과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를 통하여 그 분을 보았고 그 분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분은 나를 도와 주시었다"는 살아 있는 체험을 증거 할 수 있을때 우리는 그 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복음전파 입니다.

많은 한국순례자들이 이 곳 메주고리예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것이 개별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순례는 교회 안에서 증거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나만을 위한 순례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 주는 순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에 충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들은 가정과 교회안에 보다 더 충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임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큰 축복과 기쁨을 가지고 마음으로 함께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만났던 여러분들과 가족들, 자녀들과 한국 사제분들, 그리고 치유를 원하시던 모든 분들을 성모님의 망또 안에 품으시고 축복하시며 늘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모후이신 어머니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쁘게 그 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모두에게 가져다 주시는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이신 그 분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분을 도와드리십시요. 그렇게 할 때 한국국민들은 활짝 핀 꽃처럼 피여나며 서로 일치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 담긴 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국 순례자 분들과 미국에서 저를 만났던 모든 분들과 특별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어린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은인들을 기억합니다. 그 어린 전쟁고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여러분들과 모든 은인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M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서울 대교구

오늘은 주님의 공현 대축일입니다. 오늘 동방에서 세 명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우리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를 뵙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은 구세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늘로 부터 오는 징표에 대단히 민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상서로운 별 하나가 하늘에 떠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출현으로 구세주 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흥분과 기대에 휩싸여 세상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구세주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만일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하늘에 솟아오르지 않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께로 인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바로 오늘 날 우리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났던 별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이십니다. 하느님은 성모님을 통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성모님은 인간이 하느님을 뵈올 수 있도록,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바치신 분이셨습니다. 참 된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동반됩니다. 자기를 바치지 않은 사랑은 참 된 사랑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신 참 사랑의 인간이셨습니다. 오늘 날 성모님은 온 인류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참 된 구원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발현하시고, 메시지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메주고리예에서 보고 체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애쓰시는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은 별의 인도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날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특별히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메주고리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성스러운 별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큰 별과 같은 장소입니다. 메주고리예 순례를 마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성모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들 자신이 메주고리예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모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 분들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별이 되어야 합니다. M

이 글은 지난 2003년 1월 3일 메주고리예 순례를 마치고 드브로브닉 성 블레이즈 성당에서 거행된 주의 공현 대축일 미사 강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마리아의 순결한 피와 살로 만들어진 성체

가슴에 성체를 모시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성광들 중 하나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오, 신앙에 충만되어 생명의 빵을 모시러 오는 그리스도 인들이여! 성체를 합당하게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빵이 마리아의 순결한 피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할지어다." 마리아께서는 다음과 같은 솔로몬의 말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빚은 술을 받아 마셔라" (잠언 9,5).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는 모든 성체 성사의 제대 위에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빵을 와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양 팔을 벌리며 초대하시는, 티 없으신 동정녀의 상을 모실 것을 제의함으로써 위의 구정을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였다.

성 요한 보스코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영성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당신에게 성체를 준다고 하는 생각을 잠시 잊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손수 주신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는 "무염 시태가 성모님의 첫 영성체, 즉 말씀이 육화되심을 위한 준비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당신 순결함의 망토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당신의 무염 시태의 깨끗함과 찬란함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간청드린다면, 우리가 받아 모시는 영성체를 위한 준비를 해주실 것이다. 하루는 성녀 베르나데타에게 동료 수녀가 "어째서 수녀님은 영성체 후에 그토록 오래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라고 묻자 성녀는 "저는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저에게 아기 예수님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분을 받아모십니다. 저는 그 분에게 말을 건네며, 그 분도 저에게 말을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투르의 성 그레고리오는 마리아의 티 없으신 품이 자녀들을 먹이기 위한 생명의 빵을 가득히 담은 "천상적 그릇" 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했다.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루가 11,27) 라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쳤다.

티 없으신 동정녀께서는 예수님의 몸이 당신의 몸과 피로써 형성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모태 안에 지니고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마다 성체 성사 안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티 없으신 살과 그 분의 순결한 모유로 만들어진 생명의 빵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감미롭고 향기로운 생명의 빵을 모시면서 서로가 한 형제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

(성체 성사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발췌 : 가톨릭 출판사 발행)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의 발행을 도와 주시는 후원 회원님들

베이사이드, 캐나다의 뱅쿠버, 캘거리, 토론토 본당의 "평화의 모후" 기도회 와 아틀란타 , 디트로이트, 포트랜드, 타코마, 보스톤, 버지니아, 텍사스, 오렌지, 미네소타, 커네디캇, 롬버스, 로스엔젤리스, 오렌지, 그린포인트, 스테이트 아일랜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브롱스, 베이 사이드, 그레이트넥, 퀸스, 뉴져지, 체리힐, 미네소타, 신 바오로, 윤 메리안, 친 모니카, 비비안, 오 세실리아, 최 베드로, 오 수산나, 송 모니카, 김 멜리나, 장 누갈다, 손 데레사, 한 율리안나, 양 소피아, 윤 멜라니오, 이 데레사. 이 마리아, 강 막달레나, 오 베로니카, 각 본당의 봉사자와 뉴욕 그레이트넥 본당의 서폭 구역원들 그리고 신부님들의 깊은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주고리예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하의 말씀들 ...

많은 이들이 메주고리예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글을 쓴다. 그 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체험에 대한 증언을 통해 책자들 발간되고 있고 많은 영화와 오디오 테이프들이 제작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순례자들과 언론인들, 의사들, 사제들, 주교들과 추기경들이 각자의 체험을 통해 메주고리예를 증언하고 있다.

사람들은 메주고리예가 교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끔 거론한다.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하여 성모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셨다는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메주고리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함께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다음의 말들이 공식적인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1981년 8월 1일에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단의 의사들과의 만남에서, 교황님은, "오늘날 세계는 초자연적인 것이 주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주고리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단식과 회개로 신앙안에서 이러한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발현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인, 미리아나 드라기세빅-솔도(Mirjana Dragicedvic -Soldo)와의 개인적인 담화에서, 교황님은, "내가 교황이 아니였다면, 이미 메주고리예에 있으면서, 순례자들의 고백 성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1987년)

1990년 11월, 한국 성공회 대표인 김 안젤로 몬시뇰에게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마방문의 마지막 모임에서 한국의 주교들은 교황성하의 오찬에 초대 되었다. 김 몬시뇰은 "폴란드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교황성하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교황님은 "그 것은 나의 공적이 아닙니다. 이는 파티마와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복되신 성모님의 업적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광주 대주교님이 교황님을 만났을 때, "한국에 나주라는 도시에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성모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교황성하께서는 "유고에는 성모님을 반대하는 많은 주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는 많은 이들을 봐야 합니다. 이 모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에 일치합니다. 이 모든 일들과 열매들은 좀 더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1991년 2월에 홈 노부 (LHomme Nouveau)에 실림」

2002년 9월 20일에 교황님은 메주고리예에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되던 때 본당신부였으며 그 때부터 온 세계에 성모님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는 요조 죠브코(Jozo Zovko)신부님에게, "메주고리예를 지켜주시는 요조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메주고리예를 지키십시오, 지치지 말고, 인내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성모님과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예를 수호하고 따르십시오 " 하고 성모님과 함께 특별히 축복하신다는 말씀

교황님께서 요조 신부님에게 내리신 강복장

순례자들의 영성체를 위한 성합들

과 함께 강복장을 내려 주셨다.

브라질의 므릴로 크리에거 (Murilo Krieger)몬시뇰은 네번째로 메주고리예를 방문중이었다. 그의 첫번째 방문은1986년이었고 1987 년에 두 번째로 방문하였다.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자. "1988년 나는 여덟분의 주교님들과 33분의 신부님들과 함께 순례를 하면서 영적인 부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떠나기 전에 교황님과 사적인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교황님은 질문하지도 않으시고 "메주고리예를 가시면 그 곳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 해주십시요"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교황님께, "저는 4번째 메주고리예 순례를 갑니다" 라고 말씀 드렸다. 교황님은 잠시 안색을 부드럽게 하시고는, "메주고리예, 메주고리예는 세계 영성의 중심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브라질의 주교님들과 함께 하는 오찬중에 교황님께, "교황성하, 발현 증인들에게 당신께서 축복을 내린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네,네." 라고 말씀하시고는 나를 포옹하셨다.

1994년 11월에 파라과이의 대주교이신 펠리페 산티아고베네테스(Felipe Santiago Benetez)몬시뇰이 메주고리예의 정신에 따른 신자들의 모임을 허락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특히 메주고리예 사제와 연결되는 모임을 인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여쭈었다. 교황님께서는, "메주고리예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라고 대답하셨다. Ⓜ

* * * * *

이 외에도 로마 교황청의 믿음 성성 장관인 라찡거 추기경과 각 나라의 주교들이 메주고리예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들이 수 없이 많다.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메주고리예는 각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성장 했기때문이다.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온 수만명의 성직자들과 3천여만명의 순례자들을 회개시키고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기쁘게 살아 가도록 신앙의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 것은 교회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선포하며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간절히 가르치던 것이다.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는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파티마 발현의 증인으로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루시아 수녀님이 증언한 것 처럼 메주고리예는 파티마 성모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전 세계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성지를 인준할때 교회가 시간을 필요로 한 것 처럼 메주고리예 발현의 인준도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동안 나의 믿음안에서 성모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는 각자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편집자 주)

탈북자들의 안식처

김기수 신부
맨하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주임.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신부

1월 13일, 월요일

오후에 연길로 나와서 권철호 전도사를 만났다. 만나자 지난 1년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공안국에 끌려가서 많은 벌금을 물고 나왔고 또 다른 일로 인하여 공안국에서 잡으려고 해서 지금 피하여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벌금을 물어야하는데, 돈이 없다고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꾸어줄 수 없고 지금 나는 도와줄 명목도 없으니 안 된다고 거절하고 헤어졌다.
권철호 전도사와 헤어져 양교수님 댁으로 왔다. 저녁 6시쯤부터 흰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밤 9시쯤에 양교수님 내외는 나에게 집 키를 맡기고 한국으로 떠나셨다. 오늘밤은 양교수님 댁에서 혼자서 잤다.

1월 16일, 목요일

오늘은 화룡에 가서 셋집을 하나 얻기로 하였다. 요즘에도 탈북자들이 화룡으로 가장 많이 넘어오는데, 도문에서 화룡까지 갈려면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왕복 6시간씩 거의 매일 다닌다는 것이 너무 큰 일이어서 조금 위험하더라도 화룡에 머물면서 어느 때라도 탈북자들이 오면 만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옷과 신발, 의약품, 등...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다가 갑자기 밤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다. 마침 작년 겨울에 누가 보아도 금방 탈로가 날 만큼 비참한 옷 차림을 한 탈북자 애들 3명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공안원들의 눈을 피해 탈북자 애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옷을 사서 갈아 입힐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던 버스에서 만난 조선족 아주머니의 전화 번호가 있어서 혹시나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뜻밖에 통화가 되어 부탁하였더니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이왕에 셋집을 얻으려면, 21일날 오시는 까리따스 수녀님들과 의사들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미리 얻어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서둘러 보기로 하고 화룡으로 나갔다. 조선족 아주머니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출타 중이어서 한 시간 후에 돌아온단다.
기다리기 위하여 가까운 PC 방에 가서 인터넷을 하고 1시간 후에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벌써 아파트를 알아놓았다고 한다. 소개해준 남자분을 따라가니, 바로 PC 방 위층의 방 이었다. 한 달에 중국 돈 400위안씩 두 달을 빌렸다. 수도세와 전기세 50원씩 포함하여 900위안에 빌렸다. $100달러 정도이다. 아주 싸게 얻었다. 조그만 침실 방이 3개이고, 응접실과 부엌, 화장실이 있는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다. 이 추운 겨울에 더운물이 안 나오는 것이 흠이었지만 이만하면 근사한 "아지트"가 생긴 것이다. 김정자 아주머니... 그는 참으로 이 황량한 곳에서 내가 위급할 때 마다 나를 도와주는 수호 천사 같은 사람이다. 모습도 똘똘하게 생겼는데, 일 처리도 잘한다. 언제 만나서 보답을 해야지. 그러나 저러나 이 집에서 불쌍한 탈북자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장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1월 17일, 금요일

오늘도 양교수님댁에서 혼자 미사를 봉헌하였다. 아침을 간단하게 때우고 아무래도 화룡의 아파트에 가서 청소를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유베드로 형제 집에 전화를 하였더니 유베드로 형제가 전화를 받으며 어제 한국에서 돌아왔다고 한다. 도움이 필요하니 데레사 자매, 카타리나 자매와 함께 연길로 나오라고 하였다. 나는 미국에서 가지고 온 옷 가방을 싣고 연길역전으로 나가 베드로씨 일행과 만나서 화룡가는 버스로 화룡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다. 점심을 먹고 시장에 가서 집에 필요한 물건들 - 쓰레기통, 걸래, 비누, 수

건, 주전자, 등을 사서 집에 가서 청소를 하였다. 방바닥이 온통 석탄가루로 새까맣게 되어있었다. 유리창도 새까맣다. 넷 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고 4시가 넘어서 돌아왔다. 훈춘까지 갈려면 3시간 이상이 걸리니, 빨리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빨리 떠났다. 연길에 와서 유베드로 형제님 일행은 훈춘가는 버스를 타고 나는 연길 양교수님댁으로 돌아와 옷을 벗으니 며칠동안 목욕을 못하여 몸이 끈끈하다. 대우호텔 공중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을 하였다. 성모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M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김기수 신부님의 탈북자 돕기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프란치스코의 집'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맨하탄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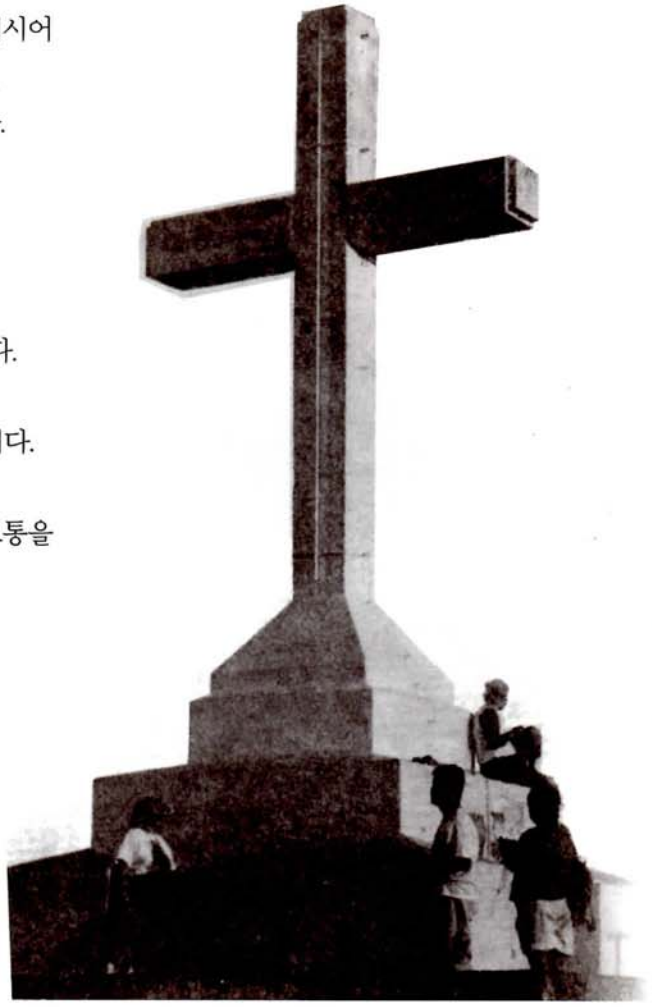
어느 소년의 꿈

하느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꿨습니다.
"네가 나를 인터뷰 하고 싶다고 했니?" 하느님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이 미소지었습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하단다...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니?"
"하느님은 사람들을 보면 뭐가 제일 신기하지요?"
하느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시절을 지루해 하더구나, 그래서 빨리 자라나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고 늙으면 다시 어린시절로 돌아 가길 바라지."
하느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하여 돈을 벌다가 소중한 건강을 잃어 버리고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쓰면서 행복한 시간도 잃어 버리지."
"미래를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현실을 의미 없이 보내 버리니 결국 사람들은 미래에도 현실에도 희망을 두지 않는 것같아."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죽어가더구나."
하느님이 나의 손을 잡아 줬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 바라보며 침묵에 빠졌죠.
그리고 나는 질문 했습니다.
"부모로써 어떤 교훈들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시죠?"
하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단지 자기를 사랑하게 그 자리에 있을 뿐인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M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

* 마약에 중독되어 학업을 포기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약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오빠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후 우울증에 빠져 방황하는 조카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장애아로 평생을 고통중에 살아온 오빠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전신마비가 된 아빠와 곁에서 간호하는 엄마가 힘을 내시어 아빠를 포기하지 않도록 성모님께 기도해주세요.
*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러움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믿음안에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어렸을적에 받은 상처로 이혼을 한 후 정서불안을 겪고 있는 남동생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남편이 개신교로 개종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모님과 성체 성사를 떠날 수 가 없습니다. 저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자폐증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아들이 너무나 안스럽습니다. 성모님께서 치유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나와 결혼하기 위하여 이혼한 남편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며 뒤늦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남편이 오래동안 직장을 못 찾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듭니다. 성모님의 평화가 저의 가족들과 남편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미사와 메주고리예 순례 때 마다 모든 기도와 지향을 성모님께 봉헌하며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 안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지향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께 드린 꽃 한송이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 필리핀 아마미노스 교구 주교님이신 헤수스 아 까브레라 (Jesus a Carera) 주교님은 로마에서 거행된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시복식에 참여하신 후에 메주고리예를 방문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천주교의 사제이며 주교로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일치 시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는 만큼 제 안에서는 마리아의 정신으로 사제로서 주교로서 제 직무를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곳에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행들이 잠자고 있을 때 혼자 발현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성모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오랜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손수건을 잃었습니다. 대신에 꽃 한 송이를 발견했는데, 그 꽃은 그 추위에 혼자서 산길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 한 송이를 꺾어서 발현 장소 성모상 앞으로 갔는데, 저는 마치 감격한 꼬마처럼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엄마, 당신을 위해 제가 꽃 한 송이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성모님께서 주시는 깊고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제가 거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저는 기도 했고, 특별히 우리 일행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행들도 이 곳에 온 것에 대해 너무나도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모두 함께 발현 언덕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였는데,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부축하면서 가는 모습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지요. 발현 장소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세워진 성모상을 보았을 때 감격적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주시는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들은 무척이나 현실적인 것들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이야 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메신저로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원하시고 모두가 성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님 왕국에 들어 갈 수 있는지 가르치고 도와주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이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위대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우리들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진정한 평화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듣고 읽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너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 메시지를 받아드리고 생활 속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화의 모후이신 동정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여러 장소에서 수 없이 발현 하신 분 입니다. 메시지들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들 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해야 하는지, 정신을 변화시키고 모든 삶을 하느님을 향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자주 돈이나 권력 물질 따위에 집착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 아드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미사와 거룩한 고해성사 등... 이웃을 위한 자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누구보다도 희생을 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M

소중한 것은 한결같은 사랑과 변치 않는 믿음임을. . .

신소연 루시아
(L.I.그레이트넥 본당)

2003년 12월 27일 처음 메주고리예 순례를 가게 되었을 때 저는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불러주고 계신다는 생각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불러 주셨고, 함께 갈 사람들과 경비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례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부터가 아니라, 순례를 기다리는 그 순간 부터 시작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며칠 전 부터 하느님께서는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제 마음을 은총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순례는 저만의 순례가 아니고 제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저의 가족이 마음으로 함께 하는 순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저에게 하느님께서는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 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메주고리예 순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알려 주신 것은, 제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음이 훨씬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 하고, 미사를 드리며, 기도 안에서 함께 소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금도 "메주고리예"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서 자신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쁨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인 것을 메주고리예에서 보았습니다.

메주고리예의 본당에서는 매일 저녁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첫 날 그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거의 세 시간이 걸리는 미사를 하면서 "주일 미사여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순례를 온 신부님들과 순례자들이 각 나라 말로 미사 한 시간 전 부터 함께 10단의 묵주기도를 바치고 나면 성모 호칭 기도로 미사를 시작합니다. 정성스러운 미사와, 치유 예절, 다시 영광의 신비를 바치고 또 평화의 기도까지 하고 저녁 예절이 끝납니다. 성 시간이 있을 땐 더 늦게 끝나고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길고 지루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묵주기도 시작하기 40분 전에는 가야지 겨우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조금만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서 미사 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월 31일 자정미사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미사 시작 두 시간 전에 갔는데 이미 성당이 꽉 차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미사를 보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유명한 스타가 온다 해도, 그 보다 더 열정적이고 평화롭게 기다리며 환영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당 안의 바닥에 까지 꽉찬 사람들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성체를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며 기도하고 찬미드렸습니다.

메주고리예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신부님, 수녀님,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는 한국말로, 저녁에는 그 나라의 말로 미사를 하루에 두번 드리는데 당연히 쓰는 언어도 다르고 각자 자신의 모국어로 기도하며 미사를 드리는데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불편 함도 없었습니다. 한국어 미사 때도 여러분의 신부님들이 함께 하시고 저녁 때에 드리는 본

당미사에는 각 국에서 오신 몇 십명의 신부님들이 각 나라말로 복음을 낭독하며 함께 미사를 드리십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불완전함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이 그 곳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서 하나이고 보편된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메주고리예에서 체험한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고서 오아시스 수도회의 수사가 되신 브라질 출신 수사님, 마약중독자였던 자신들의 체험담을 들려주던 체나콜로 공동체의 젊은이들, 그리고 유럽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첫 째 바이올린 연주자였지만 메주고리예에서 내적 치유를 받은 후 보장된 자신의 성공을 버리고 매일 저녁미사 때마다 순례자들에게 성모님의 현존이 함께 하시는 음악 봉사를 하는 멜린다 또, 자신이 마약 중독자였지만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서품 받을 날만 기다린다며 자신이 어떡게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변화되었는지를 겸손한 얼굴로 고백하는 로렌드의 나눔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성서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대로, 그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들의 체험담을 들으며 순례를 가면서 제 가슴에 있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며 하느님께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지 구체적으로 단 한 마디만 해 주시면 그대로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되돌아 보면 훨씬 중요한 것들 부터 해결해 주셨던 하느님이시기에 앞으로도 서서히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부족한 제 '삶'을 통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바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지 아직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제 안에 뿌려 주신 씨앗이 잘 자라도록 노력하면, 이 다음에 그 나무의 열매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저는 메주고리예의 거룩한 미사와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현존 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한 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몇 가지 선물을 더 주셨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의 세번째 날 새벽에 잠이 깨였을때 "내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나지막이 성모송을 외웠습니다. 갑자기 이대로 방에 있지 말고 성당 주변이라도 둘러 보자는 생각 나서 방 밖을 나서는데 같이 순례오신 아주머니에게 다른분들과 함께 성당을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성모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호텔 로비에 시간을 맞춰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기도드리며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같이 가려 했던 아주머니들이 비추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를 깜빡 잊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야고보 성당 입구의 성모상 앞에 가서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환희의 신비를 마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상으로 갈 때, 어디선가 짙은 장미 향기가 났습니다. 어떻게 12월 한밤중에...

그 전에 아주머니들께서 맡았다고 하시던 그 장미 향기속에는 아름다우신 성모님의 현존 하심과 함께 제가 갖고 있던 프라스틱 묵주에서도 장미 향기가 계속 나면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느꼈던 그 날 새벽의 그 사랑과 기쁨은 하늘나라의 평화였습니다.

1월 1일 밤에는 발현산에서 매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마리아에게 발현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지도 신부님과 친구들 하고 산으로 올라 갈 때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것 처럼 편안하면서도, "정말 성모님께서 발현 하실까.."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주 맑은 날이었는데 달 주위에만 하얀

구름과 커다란 달무리가 있었던 그 날 저녁의 달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포도밭 길을 지나서 발현산 언덕을 올랐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발현산의 돌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밟으며 올라가는데, 갑자기 지도 신부님께서 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 보니 별이 달린 왕관을 쓰신 성모님께서 양팔을 벌리시어 우리를 맞아 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며 성모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쩜 그냥 구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산에 올라 가는데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신부님의 말씀이 또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한쪽 손에 성체를 들고 계시며 다른 한 손을 부드럽게 뻗으시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성모님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시며 저의 부족한 믿음을 확인 시켜 주시는 성모님이 말 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올라간 발현산에는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마를 기다리는 자녀들 처럼 모두들 한 마음으로 묵주기도와 노래를 하며 성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존 하시는 성모님을 뵈었기에 발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의 설레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멈추어지고 성모님께서 발현 하시는 평화로운 침묵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날 밤 그 발현에서 저는 성모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분의 현존하심은 강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못보아도 성모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셨으며 제가 가져간 기도들을 모두 들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 의심하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지요. 발현이 끝났습니다. 저는 시간이 늦었기에 사람들이 집으로 가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드리며 찬미을 드리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어떤 순간적인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결 같은 사랑이고 변치 않는 믿음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오기전에 성모님을 꼭 보고 싶어하던 저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 주신 선물은 아침에 있는 한국어 미사시간에 오래전 부터 연락이 끊어졌던 대모님을 한국과 미국의 순례단으로, 이 곳 메주고리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먼저 찾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곳에 계시는 스벳 신부님께서, 순례는 아주 특별한 기도인데, 그 것은 내가 기도하려 하지 않아도 기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메주고리예 순례도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하느님과 가까워 질 수 있었으며 대모님을 만나서 더 감사했던 은총의 순례였습니다. 순례를 다녀온 후 그 때를 돌이켜 보니 일상생활에서의 제 삶이 반성됩니다. 그 곳에서 했던 결심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할 일은 메주고리예 순례를 통해 하느님께서 알려 주신 의미를 저의 삶 안에서 찾아가는 것일 겁니다. 제 힘으로 의미를 만들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찾아 갈 수 있게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던 이번 순례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성모님께 청해 봅니다. 끝으로 순례 기간 동안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좀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모님과 저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셨던 남 그레고리오 아저씨와 신경남 지도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M

새롭게 태어 남을 감사드립니다

최혜영 (카나다 / 캘거리)

지금은 빛나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없음을 아쉬워하며 메주고리예에서 보낸 꿈 같은 시간들을 되돌아 봅니다. 지난 7월 13일 콜베 아저씨와 데레사 아주머니를 약 1년만에 다시 만나면서 그 전까지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모님께서 매일 발현 하시는 곳, 바로 메주고리예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엔 불교신자이신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니기도 했으며 지금은 개신교 신자였기에 '성모님' 과 '메주고리예' 이 두 단어는 저에겐 매우 생소한 것들이었기에 믿을 수가 없었으며 꼭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 같았습니다. 이런 제가 메주고리예에 가게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2003년 10월에 뉴욕 팀과 합류하여 드브로브닉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면서 메주고리예로 향하는 제마음은 긴장되고 설레였습니다. 특히 드브로브닉의 순례 때 기억에 남는 일은 1,700 여년 간 부패하지 않고 있는 실바노 성인의 시신을 보았을 때 였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한 신앙심을 확인하고 또한 하느님은 정말 위대한 분 이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예에 도착하여 드린 첫 미사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고 유보 신부님의 강연으로 메주로리예에서의 짧지만 영원히 잊지 못 할 행복한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메주고리예에 오기 전 미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제임스 성당 안에 2천명이 훨씬 넘는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미사를 드리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을 뵙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성 시간을 지내고, 성모님께서 직접 원하셨다는 수도원을 방문하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한국팀들과 함께 맨발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른 십자가산의 14처도 전혀 힘듬없이 오히려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다른 분들에겐 정말로 죄송 할 정도로 행복감에 젖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는 도중, 같이 간 일행분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전혀 향기가 없던 묵주에서 장미향이 나고, 무심코 찍은 디지털 카메라에선 태양 주위에 성체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메주고리예에 온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적이었기에 기적을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느님과 성모님의 은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인가 저에게 서서히 마음의 고통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심했던 한 가지.... 모든 것을 같은 순례팀의 일원으로 함께 미사를 드려도 어는 순간에는 분리 될 수 밖에 없는 한 가지... 그 것은 바로 천주교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성체 성사 였습니다. 성체에 관해 무슨 맛 일까 궁금증을 가져 본 적은 많았지만 제가 개신교 신자이기에 절실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고 싶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드린 한국어 미사에서 성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아프다못해 시려움을 느끼며 너무나도 간절히 성체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길 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조 신부님과의 만남은 제가 성모님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

미사에서 성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아프다못해
시려움을 느끼며 너무나도 간절히 성체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길 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니다. 뒤 쪽에 자리를 잡아 앉은 저는 통역을 하시는 분의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요조 신부님을 만났다는 자체 만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통역하시는 자매님이 자리를 옮겨 제 앞에 서서 통역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전 너무나도 정확하게 힘이 넘치시는 요조 신부님의 강론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강론이 거의 끝날 때 쯤, 늘 머리 속에서만 계신 성모님께서 어느새 제 마음속으로 옮겨 오심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억지로 짜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지금은 멈추려해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성 시간에 바이올린과 기타로 음악 봉사를 하는 멜린다, 로렌도가 함께 우리 순례단에 특별히 마련된 그 날 저녁의 기도회에선 기도의 중요성과 기쁨이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기도회 도중 한 형제님이 자신의 체험담을 발표하던 도중 쓰러짐에 놀란 우리는 즉시 묵주 기도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다리 아프다는 핑계로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적이 없던 제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성 시간동안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화와 함께 기쁨을 느끼며 이제야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성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비로 인해 발현산에 가기로 한 일정이 취소되고 개인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산을 마지막으로 올라 가자고 하였지만 피곤함을 느낀 저는 숙소에 남아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 새 비는 멈추웠지만 길은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십자가 산에 오를 때보다 시간이 두배로 걸리고 맨발로 오를 때보다 힘도 두배로 들었습니다. 십자가 산의 정상에 도착했을땐 어느 틈에 날은 깜깜해지고 우리는 급히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손 전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어서 울퉁불퉁, 미끄러운 길을 모두들 조심스럽게 내려와야 했습니다. 바로 제앞에 가시던 자매님이 뒤로 쳐지면서 저 혼자 산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웠지만 손전등 없이도 길이 보여서 너무도 쉽게 산을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간간히 들리던 일행들의 말 소리 조차 들리지 않고 완전히 저 혼자가 되었을때 문득,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 평평하다는 것을 느끼고 "올라올 때도 이런 길이 있었나? 혹시 길을 잃은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앞에 가시던 지도신부님께선 옆에 있는 넓고 평평한 길을 놔두고 바위로 된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멈추었을때 눈앞에 성당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천주교로 종교를 옮기고 싶은 강한 이끌림이 제 마음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전 그전 까지 천주교가 좋다는것을 알았지만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친구들은 모두 개신교 신자이며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허락하시면 필요한 것이 채워 짐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의

모든 것을 그 분들께서 알아서 써 주시기를 믿음으로 봉헌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비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었던 발현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청동으로 된 예수님 상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발현산은 그 전에도 몇번이나 가 보았기에) 마지막에 단체 행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정대로 발현산에 갔습니다. 순례 안내를 해주시는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께서 "여기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때, 일행이셨던 한 수녀님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시어 우리 일행 모두를 감싸 안으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였으며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때 부터 성모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티할리나에 계시는 아름다운 성모님께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의 모습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당에 도착한 우리 모두는 하늘에 떠 있는 수 많은 성체를 보게 되었고 성당 안에 계시는 성모님의 아름다움에 취해 현존해 주심에 이끌리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메주고리예는 정말 평범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느님이 계시는 곳으로만 마음을 향하고 기도가 생활화 되어 묵주가 손에서 떠나지 않고 나와 다른 이들도 이해하며 받아 들이는 사랑이 있는 곳이며, 무엇 보다 일상 생활에서 체험 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정말 다른 곳이었습니다. 메주고리예를 다녀온 이 후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남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앙이야기를 하고 남을 위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무엇보다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하여 교리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영성체는 영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매일 미사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음식에 욕심이 많은 터라 정말 잘 견딜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신기하게도 단식을 하는 날에는 음식에 대한 자제력이 생기고,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날 문득 저는 저의 삶을 주님께 모두 바쳤고, 진정으로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제 삶에 첫 번째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주님께서 주신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었고, 제 삶이 조금식 조금씩 단순해지게 되어, 소유욕도 조금씩 사라지며 모든 관심사가 하느님께로만 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늘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전에는 뜨겁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느끼지 못했던 죄들이 이제는 저를 괴롭게 하며, 또한 저의 나약함을 발견 할 때 심한 내적 고통을 느낍니다. 잦은 내적 투쟁으로 힘들어 할 때면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기도하고 성서를 읽으라고 하시고 그러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행복과 고통이 한꺼번에 따르지만 모든 것을 기쁨으로 순명하고 받아들이며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어 나의 삶속에서 조금이나마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남은 삶을 기쁘게 하느님께 바치고 싶은 제 마음을 아이린 조지 여사가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겸손, 신뢰, 관대함,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순명의 자세가 하느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저를 메주고리예로 데려다 주시어 성모님을 알게 해주신 콜베 아저씨, 데레사 아주머니, 안드레아, 해인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M

(개신교 신자였던 최혜영자매는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온 후 성소를 지향하며 천주교의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중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Y

Our Lady's Monthly Message • February 25th, 2004

Dear children!
Also today, as never up to now, I call you to open your hearts to my messages. Little children, be those who draw souls to God and not those who distance them. I am with you and love you all with a special love. This is a time of penance and conversion.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call you to be mine with all your heart and then you will see that your God is great, because He will give you an abundance of blessings and peac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Monthly Reflection on our Lady's Message

2004 Prayer Intentions from our Holy Father

Testimonials

Holy Father's Prayer Intentions For 2004

JANUARY 2004
General: That all men and women may recognize that they are members of God's one family and end wars, injustice and discrimination among themselves.

Missionary: That every mission Church may engage itself in the training of apostolic personnel.

FEBRUARY 2004
General: For peaceful co-existence among Christians, Jews and Muslims in the Holy Land.

Missionary: That In Oceania priestly and religious vocations for evangelization in the local Churches may receive special care.

MARCH 2004
General: That the land, culture and all the rights of the indigenous populations of the world may be respected, so that true harmony between them and those among whom they live may be attained.

Missionary: That in Africa, cooperation between missionary Institutes and local Churches may grow, with respect for the variety of gifts.

APRIL 2004
General: That solid preparation of the candidates for holy orders and permanent training of ordained ministers may be carefully provided for.

Missionary: That the missionary spirit of "Ad Gentes" may become a theme of reflection and a matter of constant commitment in the ordinary pastoral activity of the Christian community.

MONTHLY REFLECTION ON THE MESSAGE

" Dear children! Also today I call you to pray. Pray, little children, in a special way for all those who have not come to know God's love. Pray that their hearts may open and draw closer to my heart and the Heart of my Son Jesus, so that we can transform them into people of peace and lov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Message of January 25, 2004

"TO COME TO KNOW GOD'S LOVE"

Our Heavenly Mother, the Queen of Peace, addresses her maternal word to us all, tirelessly, patiently, and with a challenging love. The love of Mary, our Mother, does not leave us passive, but wants to move us to do something beautiful and good for God in our neighbour. We can be moved only if we allow God to touch us and to bring us in motion. Only the one who has met God, and who has made the experience of how much God loves him, will be able to give to the others what he himself has received. We cannot give what we do not have, and we cannot have if we do not ask from God who is not giving in a stingy way, but abundantly.

Nobody can say: **"love God so much that I cannot love Him more".** We can always love more and in as stronger way.

Mary, our Mother, wants that we understand how much God loves us. The love of God is so tender that it never imposes itself. God never brings confusion to the soul; He prefers to attract it and to fill it with His love.

However, God cannot fill what is already filled by something. We must empty ourselves so that He may fill us. Jesus teaches us: **"Blessed are the pure of heart, they shall see God"**(Mt 5,8) Only a pure heart can see God and can recognize in his neighbour somebody for whom he is himself responsible. We are all responsible for one another and we are linked to one another by invisible spiritual bonds. We radiate around us the good or the evil. Today still, through Mary, God needs our hands, our voice, our feet, to love this world through us. God does not expect from us great and magnificent deeds, He rather asks us to put love in all that we do. We cannot and we should not keep the love of God for ourselves. The goal of our efforts, of our prayers and of our deeds is not to come to God and to remain near Him, but to attract to Him all humanity all those whom He has put on our way; or rather to allow that He attracts them to Himself through us, and that He grants them health, peace, and freedom.

Today still, through Mary, God needs our hands, our voice, our feet, to love this world through us. God does not expect from us great and magnificent deeds, He rather asks us to put love in all that we do. We cannot and we should not keep the love of God for ourselves. The goal of our efforts, of our prayers and of our deeds is not to come to God and to remain near Him, but to attract to Him all humanity all those whom He has put on our way; or rather to allow that He attracts them to Himself through us, and that He grants them health, peace, and freedom.

Blessed Mother Teresa said: **"True love always brings suffering. It is always a suffering".** Love and suffering always go together. This is also what Christ showed us. He loved us even in pain. He loved us, but not because it would be pleasant for Him. He went until the death on the cross. Jesus teaches us when He tells us: There is no greater love than to give one's life for those whom one loves.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you . (Jn 15,13-14)

M

Today, the world is not hungry of things or money, but of love. We are created for love. If we do not have love, we will seek to fill this emptiness with things and with fleeting pleasures, but we cannot cheat our heart and our soul, because they claim the source that has created them. The greatest hunger of human beings is to love and to be loved. We become sick because we do not love and because we do not make the experience of the love of God. This is why - also in this message - Mary, our Mother, calls us: "Pray". However, prayer is not a psychological need, but a request of the love of God. Love is prayer. If we do not pray, we will not be able to love, and if we do not love, we will not have the strength to die to ourselves and to our selfishness, which hurts us as well as the others around us.

Let us not become weary to walk on the way to which our Mother calls us, and on which She goes with us, in order to lead us to the source of life - to God. M

Fr. Ljubo Kurtovic
Medjugorje January 26, 2004
Information Centre "Mir" Medjugorje, www.medjugorje.hr

The Hail Mary Prayer in Latin and French language

Crotian
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cta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ae.
Amen

Italian
Je vous salue, Marie, pleine de grâce.
Le Seigneur est avec vous.
Vous êste bénie entre toutes les femmes,
et Jésus, le fruit de vos entrailles, est béni.
Sainte Marie, Mère de Dieu, Priez pour nous, pauvres pécheurs,
maintenant et à l'heure de notre mort.
Amen

Pray for us, Gospa

MSGR. JESUS A CABRERA, BISHOP OF ALAMINOS (PHILIPPINES) IN MEDJUGORJE

Msgr. Jesus a Cabrera, bishop of Alaminos (Philippines) came on a private visit to Medjugorje from October 15 to 17, 2003. He came to Europe, because he went to Rome for the beatification of Mother Teresa. He told us:

"I read magazines about Medjugorje and I heard about Medjugorje through people who came here. In one of the churches in the diocese, people have the statue of Our Lady of Medjugorje. We already have the statue, so Medjugorje is well known.

I would like also to tell you a very interesting story. I think it was in 1990. A group of Philippinos came here. Those who come here are those who have money, those who are rich, but the priest, just like me, he was brought here freely. He went to the mountain, and he was asking the Blessed Mother: "Only those who are rich are able to come here to Medjugorje. What about the poor "And he heard loud and clear what the Blessed Mother told him: "I am going to them, I am with them." I was very happy when I heard this! Our Lady goes to them! There is a grace for those who come, but Our Lady herself goes to the poor!

The official thinking of the Church in the Philippines is the same as the position of Rome. Medjugorje is not officially recognised by Rome. We think that in this place, many people are inspired to a better life, the Church does not forbid to anybody to come here, and many Philippinos come here. We can see the good fruits, the effects on those who come here. There is not an official position. As long as our devotion is in reasonable limits... I am very happy when I see my people pray more. They receive more Holy Communion, they go for Mass, they go for confession, they become better... I think, this is the work of the Blessed Mother. This is what counts a lot. We have to wait maybe for a spectacular miracle to happen that the Church recognises Medjugorje! There are already many, many miracles of grace that happen. They happen in the lives of people. The fact that they come closer to God, I think, that this is the sign.

As a priest, as a bishop, I always consider myself as a priest of Mary. I am doing the work of Mary. As a priest, as a bishop, I have to bring people to Jesus and I have to bring Jesus to the people. So, the more I myself have the spirit of Mary, the more I can be able to fulfil my mission as a priest or as a bishop.

Personally, I am very, very happy here. Early this morning, when all my companions were asleep, I went to the Apparition Hill all by myself. It was very cold, I did not know the way, but I prayed to the Blessed Mother and she showed me the way. On the way, I lost my handkerchief, but I found a flower. It was the only flower around, I picked it up, and when I reached the statue, I was excited like a child. I said: "Blessed Mother, I have a flower for you!" I was so much at peace as I prayed. The Blessed Mother made me feel that she was very happy that I was there. I was praying for all, especially for the members of the group. They are also very, very happy here. We had Mass here, then we all went up there, and it was so beautiful as we were praying together. The younger ones were helping the older ones to climb... It was the picture of our life here on earth: we have to help one another. When we came up, when we saw the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it was something really beautiful. M

The messages are very, very timely and they are meant for all of us. I always see the Blessed Mother as a special messenger of Jesus. She wants all of us, all, to be a saint. This is why she makes extra efforts to reach us, to help us to remind us what to do and how to reach the Kingdom. This is a sign of a great love of the Blessed Mother of all of us. It is also the proof that the Blessed Mother is actively concerned and active for our well-being. She wants all of us to be really happy and to have real peace. All we have to do is to listen to the messages, to read them, to put them into practice. I remember what is written in the Psalm of today: "If today you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Make sure that your heart is receptive of the messages and put them into practice!

I am acting as an instrument of the Blessed Mother. She had appeared several times in several places. The message she had been giving is coming from God himself. She tells us to pray and pray. We should place God as the first and foremost in our life. That is why we have to be converted and make sure that our heart, our mind and our whole life are turned to God. Often, our heart is fixed on material things like money, power, and similar things. The Blessed Mother tells us to pay more attention to what her Son is telling us. Holy Mass, Holy Communion, Confession... To be more concerned about other people, making sacrifices, doing works of love for other people.

I believe that if we listen more to the message of the Blessed Mother, and if we are one in loving God and one another, we shall experience real peace among ourselves, no matter what country we come from, because our hearts will be disposed to accept one another and to help one another. That is how we realise that, after all, we are all one family, one big family, brothers and sisters. We are one family and we have only one Father. How wonderful it is when we pray in all sincerity: "Our Father"! We realise that every person is a brother and sister whom we love. This is what the Blessed Mother wants

The fruit of the mission of the Blessed Mother is all of us, that we become one family, one Church. I feel very much at home here. It is as if Our Lady was telling me, 'This is your home!' M

발 행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 행 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 도 신 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자문위원단 :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 집 위 원 : 오영숙, 양의현, 남미자, 조혜선
인 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주소가
펜실바니아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소와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평화의 모후 선교회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뉴왁교구 가톨릭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 를 발행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회개하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 발행
2. 신앙 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예 순례 안내
3.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5. 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6. 메주고리예 관련 책 번역및 출판 보급
7.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관련인사 및 메주고리예 목격증인 초청 강연회 개최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단다"라고 하시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성모님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메주고리예" 소식지의 의 꾸준한 발행을 통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선교 사명에 쓰여지고 있으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 회원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 를 보내드립니다.
2. 메주고리예 순례 때와 매월 성모 신심 첫 토요일에 회원들의 기도 지향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모든 기도 지향"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에게 전해 주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 "메주고리예"는 후원회원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무료 배부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본당의 봉사자님들은
전화나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 E-mail : qpmm2003@hanmail.net

평화의 모후 선교회 "메주고리예 소식지" 후원 회원 가입서

성명 : 영문 : 영세명 :

주소 :

전화(H) : 전화(O) : Fax :

E-mail : 소속본당 :

해당란에 0 표하여 주십시요. 월( ) 년( ) 기타( ) : 기존회원 ( ) 새회원 ( )

보내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문의전화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 LA 지역: 친 모니카 평화의 모후 성물쎈타 (323-730-1499)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세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초대한다 . . .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세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 . .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 . .

www.qpmm.org

미국 남 그레그리오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 E-mail : gregorynam@hotmail.com

한국 허혜경 안젤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 아파트 102동 505호
Tel. 031-878-7362 / HP. 017-785-3535 / E-mail : [illegible]k2123@hanmail.net